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화 예술 연합 포럼이라는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한데 대해 환영하고 이 포럼에 공동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기관대표님들과 행사에 참여해주신 참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포럼은 금년 6월 부산, 7월 진주, 10월 13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개최한 데 이어 네 번째 포럼이 됩니다. 또한 11월 22일에는 인도적 지원과 전후복구포럼도 서울 무역협회에서 개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 포럼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연합 포럼에 참여한 문화 예술 단체는 그동안 국내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대거 소재해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지원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관간 상호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고 또 청중들에게는 문화 예술분야의 인도적 지원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난민들에게는 전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9개월 째고 이제 겨울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때 보다 겨울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원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포럼 개최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동시에 평화를 지키고 주권과 영토 보전, 독립이라는 유엔의 질서와 핵심가치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승리 해야하며 이미 승리해 놓은 전쟁이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 하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포럼의 성공개최를 기원 드리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